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만들자”

### 정진석 국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연설...외교 논란 민주당·MBC 비판 “민주당 영수회담 제안 언제든 가능”...비쟁점 법안처리 논의 제안도

국회의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혼란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 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무책임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대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갑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몰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라며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사법을 정치에 끌어 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야 관계와 관련, “협치”를 강조하면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협치만 제대로 된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유승민 “당정, 국민 상대 코미디 중단해야”

### 대구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특강...정치 행보 기지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깨닫지 못해 좌절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주제의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 국민이 지금 정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만한 그런 일을,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상황과 관련해해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상납 의혹이 작년 12월에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 와서 제거하니 얼마나 무리한 일이나”고 물었다.

또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유’라는 그네 글자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냐”며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관중과 사자성어는 안 되냐,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법원에 갔고 가서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고 나서서 이 대표 표하고 정말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는 생각 전혀 안 해 왔다.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연합뉴스



“외교라인 전면 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남 탓 일관한 공허한 연설”

### 민주당, 국회 대표연설 혹평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위기와 외교참사 등을 거론하며 “정 위원장의 연설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집권여당의 대안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국정을 어떻게 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연설”이라고 거듭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듣고 있지 못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국민들께서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다”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게 다 전 정부와 야당, 언론 탓”이라며 “무한 책임을 진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문정은 단독 등록

정의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7기 전국당시 당직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에 문정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이 단독 등록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남인 28일까지 마감한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접수에 문 비대위원이 단독 등록했다.

정의당은 지난 23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광주시당 위원장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 각급 단위의 당직을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시당위원장으로 나선 문 비대위원은 광주



출신으로 정의당 부대표와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직을 지냈고, 4번의 공직선거 출마로 안팎으로 검증된 인재다. 또한,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으로 행정과 사회운동 경험도 풍부하다.

다는 평이다. 문 후보는 출마의변에서 “정의당이 지적과 비판을 넘어 정책에서 뜨겁게 경쟁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

# 도의회 ‘전남 농산물 소비 운동’ 촉구

### 교육청에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전남도의회가 아침밥 먹기, 과일 간식 및 친환경 농산물 제공 등 전남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쌀값 회복을 위한 ‘아침밥 먹기’와 ‘아침 학교급식’을 시작하자는 요구 뿐 아니라, 정부가 삭감한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배급 사업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에 대한 과일 간식 제공 사업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다.

나광국(더민주·무안 2) 의원은 29일 열린 제 36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남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도와 교육청에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부터 구내식당 아침식사 이용을 늘리고 아침 회식과 조찬 미팅을 활성화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게 나 의원 요구다.

손남일(더민주·영암 2) 의원은 농림부가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손 의원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농업인 등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날 48명의 동료 의원들과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야, 농림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지유 기자 dok2000@kwangju.co.kr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